

# 가정학의 어원변화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tymological Change of Home Economics

호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과  
조교수 윤 숙 현

Dept. of Home Living Honam Univ.  
Assistant Prof. : Sook Hyeon Yoon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결론 및 제언 |
| II. 가정학의 어원변화;<br><i>Oikonomia</i> 로부터 Home Economics까지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tymological change of 'home economics' and to suggest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of home economics. For this purpose, '*oikonomia*'— that was used by Aristotle— was analyzed and the process of the change of the term '*oikonomia*' after modern society was consider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known that economic perspective has been enhanced in studying home living. The enhancement of the economic perspective in grasping home resulted in the limit of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and nature of home. It was suggested that we should take more interest in 'economy' on the basis of '*oikonomia*' than in 'home economics' which is based on 'economics', philosophical study rather than empirical study on these subjects should be adequate.

#### I. 서론

근대사회 이후 소비와 생산의 현상이 분리되고 직업노동이 중시되면서 기업의 경제성 개념이 가정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가정생활의 합리화, 효율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가정생활의 합리화는 과

학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현대사회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고, 이에 따라 근대사회 이후 가정을 연구하는 관점 역시 가정생활의 합리화, 효율화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가정을 가정의 고유성

에 입각하여 이해하였다기보다 기업의 관점에서 가정을 이해하는 데 가까웠으며, 따라서 이전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현대사회의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병리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연구들이 꼭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오히려 현대의 가정생활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구별되는 '가정'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가정을 연구하는 가정학이 어떤 학문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학의 어원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가정학의 어원에 관한 고찰은 가정학이 원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학문이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이는 다시 가정학의 관심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를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학의 어원에 관하여 살펴 본 후에, 앞으로 가정학의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학의 어원은 고대 그리이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현대 가정학의 기초를 이루어온 근대 가정학은 미국 가정학회의 성립을 기초로 발전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하였던 'oikonomia'의 개념을 분석적으로 고찰할 것이며, 근대 가정학에서 사용해진 명칭인 home economics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 두 용어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가정학의 어원변화; *Oikonomia*로부터 Home Economics까지

'가정학'(家政學)의 영문표기는 'home economics'이다. 그러나 'home economics'라는 용어가 '가정학'의 본질을 잘 보여 주고 있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가정학'이 희랍어의 'oikonomia'(οικονομία)에서 유래했다(Schweitzer, 1977; 세키구치 후사 외 편저, 1977)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런데 가정학이 희랍어의 oikonomia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면서 그것의 영어 표기는 home economics로 사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어원상의 문제가 있다.

즉, 엄밀하게 말하여 oikonomia는 home economics의 희랍어 어원도 아니고 economics의 희랍어 어원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가정학의 희랍어 어원을 oikonomia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의 문점이 단순히 어원상의 문제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가정학의 성격을 이해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어원상의 문제는 세밀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어원상으로 볼 때, 'economics'의 정확한 희랍어 어원은 'oikonomika'(οικονομικά)이며, 이 단어는 'oikonomikos'(οικονομικός)의 복수형이다. 그러므로 oikonomikos는 영어의 'economic'의 희랍어 어원이 된다. 희랍어 oikonomikos는 'oikonomos'와 'ikos'의 합성어이고, oikonomos는 'oikos'와 'nomos'의 합성어이다. 그리고 oikos는 '집'을 뜻하는 'house'의 의미이며, nomos<sup>2)</sup>는 '관리자'의 뜻인 'manager'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oikos와 nomos의 합성어로서의 oikonomos는 '집사', '가신'의 뜻을 나타내는 영어의 'steward'에 해당하고 'ikos'는 형용사형을 나타내는

1) 이것의 라틴어 표기는 'oconomica'이며, 문헌에 따라서는 희랍어 어원보다는 라틴어 어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 참고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oikonomika」를 영어로 번역한 포스터(Forster)의 영어 번역본의 제목은 희랍어의 'oikonomika'가 아니라, 라틴어의 'oconomica'로 되어 있다.

2) 이것은 '관리하다'는 뜻인 희랍어 'nemein'(ν)=to manage)의 명사형이다.

‘-ic’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형용사로서의 ‘economic’ (즉, *oikonomikos*)이라는 용어는 ‘가정관리에 능숙한’ (skilled in the management of a household)이라는 뜻이 된다. 이상의 고찰에 비추어 볼 때, ‘economics’ (즉, *oikonomika*)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가정관리를 능숙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의미가 되며, ‘가정관리를 능숙하게 하는 것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가정학’이므로 ‘economics’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가정학’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원상으로 볼 때, ‘가정학’을 영어로 ‘home economics’로 표기하는 것은 명백히 동어반복이며, 이 점에서 ‘가정학’으로서의 ‘home economics’라는 용어는 어원의 의미에 바탕을 두고 붙여진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정학’을 미국에서 영어로 ‘home economics’로 표기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이며, 이 당시에는 이미 ‘economics’로 표기되는 ‘경제학’이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던 때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학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경제학이 ‘economics’의 어원상의 의미와 관련을 맺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적 의미에서의 ‘경제학’은 회랍어 ‘*oikonomika*’의 본래적 의미와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경제학이 *economics*의 어원상의 의미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학을 ‘부(富)의 생산과 처리’와 관련지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가정의 생활필수품의 획득’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다. 가정생활에는 다양한 종류의 재화를 필요로 하며, 이 재화의 조달에는 필연적으로 ‘재화의 교환’ 또는 ‘재화의 유통’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재화의 교환이나 유통은 이윤추구나 더 많은 부(富)를 획득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원만한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획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재화의 유통은 가정생활과 관련지어 해석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정생활과 직결된 재화의 교환이나 유통의 원초적 형태는 ‘물물교환’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만약 경제학을 ‘더 많은 재화의 획득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획득과 관련된 인간 활동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그것은 *economics*의 어원상의 의미와 부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세키구치 후사 외 편저, 1977, p.179). 왜냐하면 *economics*의 어원에는 명백히 재화의 관리와 관련되는 한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가정의 구성요소는 인간과 재화이다”(Aristoteles, 1343a). 이렇듯 *economics*의 어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제학적 연구과제는 가정학의 한 분야로 포함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한다면, 현대의 경제학도 명백히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제학을 ‘더 많은 부의 획득 방법’과 관련된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학의 본래적 의미는 역사의 발전과 함께 점점 퇴색되어 갔으며, 그리하여 오늘날의 경제학은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둔, *oikonomika*의 의미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economics*의 의미는 변질되었으며, 오늘날의 경제학은 다분히 이 변질된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가정을 관리한다’는 ‘*economics*’의 본래적 의미는 점점 더 희석되어 왔다(Schweitzer, 1977, p.42).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가정학’을 ‘home economics’로 명명한 것은 가정을 ‘경제학적 관점’이라는 독특한 잣대를 통하여 보겠다는 방향의 설정이다. ‘home economics’에서의 ‘*economics*’는 그것의 어원적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경제학’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home economics’를 ‘가정학’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의 정확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가정학이 아니라 ‘가정경제학’이다.<sup>3)</sup> ‘*economics*’라는 용어는 원래 그 자체가 가정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역사의 변천 과정에서 그 용어는 경제학으로 넘어가 버렸으며, 경제학에서는 그 용어의 의

3) ‘New Home Economics’는 ‘신가정학’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신가정경제학’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를 변질시켜 버렸다. 그리고 가정학에서는 경제학에서 변질시킨 그 용어를 다시 차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가 단순히 용어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용어상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가정학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가정학이라는 말이 Home Economics란 영어의 번역어로서 경제적 측면의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물질을 소모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家政)을 경제 또는 경제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일면이고, 전부는 아니다.”(세키구치 후사 외 편저, 1977, p.91). 가정에 명백히 경제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재와 같이 자본의 논리와 결부된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경제적 측면은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논리와 결부된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가정학을 ‘home economics’로 보는 한 가정학이라는 용어는 ‘가정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연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학’을 ‘home economics’로 규정한 미국적 관점(즉, 경제적 관점)은 그 이후의 가정학 연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가정학 연구의 현대적 상황은 이러한 영향의 최종적 결과물이다. 그러나 조금만 세심히 따져보다면,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정학은 ‘철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연구되어 왔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이 점에서 모든 학문은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학은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가정학이 가정을 자본의 논리와 결부된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할 때, 가정의 수많은 다른 측면들은 당연히 무시되거나 경시될 수밖에 없

으며, 따라서 가정을 연구하는 방법 또한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실증적 연구’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학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그 본질에 부합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가정학의 ‘정체성(identity)’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가정학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은 ‘home economics’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가정학’의 희랍어 어원은 ‘oikonomia’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home economics’의 희랍어 어원은 ‘oikonomia’가 아니다. 우리는 가정학의 희랍어 어원이 ‘oikonomia’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oikonomia’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다른 용어를 현재 가정학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가정학의 희랍어 어원이 진정으로 ‘oikonomia’이고, 그것이 오늘날 ‘home economics’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발전하였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희랍어 ‘oikonomia’의 현대적 번역어는 ‘economics’가 아니라 ‘economy’이다. 희랍어 ‘oikonomia’는 ‘oikonomos’와 ‘-ia’의 합성어이며, ‘-ia’는 현대어로 ‘-y’로 번역된다.<sup>4)</sup> 그러므로 ‘oikonomia’라는 용어는 ‘가정을 다스리는 것(家政 또는 家庭管理)에 관한 학문(an art of managing a household)<sup>5)</sup>, 즉, ‘가정학’(家政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가 ‘가정학의 희랍어 어원은 oikonomia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학’은 당연히 영어의 ‘home economics’가 아니라 ‘economy’가 되어야 한다. ‘oikonomia’의 현대적 용어로서의 ‘economy’라는 개념은 가정의 본래적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고도 풍부하게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학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에 관한 시사를 줌으로써 가정학의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내어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웹스터 대사전<sup>6)</sup>에 의하면, ‘economy’

4) 학문적 용어 중에서 이것과 유사한 대표적인 보기는 ‘philosophy’이다. 영어의 ‘philosophy’는 희랍어의 ‘philosophia’에서 유래한 것이다.

5) 웹스터 대사전. 여기서 ‘art’라는 용어는 ‘기술’이라는 뜻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뜻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보기가 ‘seven liberal arts’, 즉 ‘七自由學科’이다.

라는 개념 속에는 ‘가정학’<sup>6)</sup>, ‘신(神)의 섭리’, ‘근검과 절약’, ‘효율적 이용’, ‘자연의 법칙과 질서 및 체계’, 그리고 ‘유기적 통일’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상의 정의들은 외관상 보기에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정의들은 사실상 논리적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것들은 ‘가정학’이라는 하나의 용어 속으로 수렴될 수 있다.

영어권에 속하는 현대의 가정학자들이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가정학’의 명칭을 ‘home economics’가 아니라 ‘economy’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은 ‘철학’을 나타내는 용어인 ‘*philosophia*’가 ‘*philosophy*’가 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원상에 관련된 의미상의 문제를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그들이 ‘가정학’을 ‘home economics’라고 명명한 데에는 특별한 의지가 결부되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conomy’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신의 섭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정은 한 위대한 개인이나 몇몇 집단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마치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신비이듯이 그것은 하나의 신비이다.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종족을 보더라도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신의 섭리’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하등 잘못될 것이 없다. 이때 신의 섭리라는 측면은 자연의 법칙 또는 질서라는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속성은 근검과 절약, 그리고 효율적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가정과 관련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의 경제적 측면이다. 물질적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면 충분하며, 이러한 생각은 가

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해되고 내면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도덕적 측면과 연결된다. 가정은 사욕이 무한히 방출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면서 상대방의 행복과 자유와 존엄성을 고려하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유기적 통일에 해당한다. 가정은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줌으로써 가족 간에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는 곳이다. 이것이 가정의 속성이다.

본래적 의미에서의 가정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육아 등 제반현상에 대하여 그 현상들이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바로 ‘*oikonomia*’의 진정한 의미이다. 앞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속성을 ‘신의 섭리’ 또는 ‘자연의 질서’ 등과 같은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였지만 가정의 속성은 이러한 간단한 문구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성격들은 실증적 연구나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깊은 철학적 성찰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다.

지금까지 가정학에서 이루어졌던 연구들은 다분히 ‘*oikonomika*’에 바탕을 둔 ‘home economics’의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어 온 반면에, ‘*oikonomia*’에 바탕을 둔 ‘economy’의 측면은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가정학자들에 의해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1970년대에 이미 유희경 등(1975, p.43)은 가정학 교육에 있어서 철학이 결여되어왔음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이 철학이 결여된 가정학 교육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진단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 문숙재(1981, pp.3-4)는 가정학이 해방 이후 생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주축으로 하면서 가정학의 주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를 소홀히 해왔음을 강조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1987, p.96)에

6) 웹스터 대사전에 나오는 ‘economy’의 첫번째 정의가 ‘가정학’(an art of managing a household)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랍어 대사전(Greek-English Lexicon)에 의하면, ‘*οικονομία*’의 영어 정의는 ‘management of a household or family, husbandry, thrift’이다.

서 그는 가정경제와 기업경제가 혼동됨으로써 결국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에 김항아와 유태명(1995, p.15)은 가정학의 발전을 위해서 가정학 철학, 가정학 원론과 같이 가정학 본래의 목적 및 존재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는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가정학의 본질 및 가정학의 사명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져 한다고 보았다.

### III.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고찰에서는 가정학의 어원변화를 중심으로 가정학이 어떤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가정학의 연구방법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학의 영어 표기를 'home economics'에서 'economy'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공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나서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필요도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학의 어원으로 알려져 있는 희랍어 'oikonomia'의 정확한 현대적 의미인 'economy'라는 용어에 비추어 볼 때, 가정학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ikonomia'에 바탕을 둔 'economy'의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정학'에서는 가정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깊이있게 분석함으로써 그것들의 의미를 점점 더 풍부하게 밝혀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족은 무엇이며, 이 제도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결혼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정에서 자식을 교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학교에서의 교육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인간이 형식을 갖추어 식사하고, 의복을 입고, 거주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부부 간의 육체적 관련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다른 인간과의 육체적 관련과는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고

우리는 그 차이를 왜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여자나 남자가 다른 집안의 며느리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가정학적 해석의 양이 점점 풍부해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보다 풍족해지고 윤택해질 것이며, 그리하여 인간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내용들은 성격상 조사연구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연구를 통하여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이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적 신념을 찾아내고 규명하는 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김항아, 유태명(1995). 우리나라 가정학의 당면문제점과 그 역사적·철학적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1-18.
- 2) 문숙재(1981). 가정관리학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19(4), 1-7.
- 3) \_\_\_\_\_ (1987). 생활문화의 전승과 창조. 「대한가정학회지」, 25(4), 93-98.
- 4) 세키구치 후사 외(편저)(1977). 「가정철학」. 김의숙·장용선(공역)(1996). 서울: 교문사.
- 5) 유희경 외 4인(1975). 가정학의 검토와 미래의 방향제시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2), 1-50.
- 6) AHEA(1987). *Definitive Themes in Home Economics and their impact on Families 1909-1984*. Washingto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7) Aristotle. Foster, E.S.(trans)(1966). *Oeconomica*. the Works of Aristotle. Oxford. Clarendon Press.
- 8) Liddell, H. G. & R. Scott(comp.)(1984). *Greek-English Lexicon*, Oxford University Press.
- 9) Schweitzer, R. V.(1977). From the Economic Writings of Aristotle to Home Economics in the German Federal Republic Today. *Journal of Home Economics*, 1, 41-50.
- 10) Webster, M.(1984).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P. B. Gove(ed. in chief), Massachusetts: Merriam-Webster Inc.